

폐플라스틱, 재활용 인증심사 강화

산자부, 폐고무·섬유 포함 16분야 207품목 확정 ... 사후관리 필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재활용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환경친화성이 큰 16개 분야의 207개 제품을 우수 재활용(GR) 인증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GR 인증대상으로는 폐플라스틱이 59개로 가장 많고 폐요업 32개, 폐고무 24건, 폐유리 9건, 폐목재와 폐금속, 폐섬유가 각각 8건 등이다.

새로 지정·공고된 품목들은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GR 인증평가 심사를 대폭 강화했으며, 기존 17개 분야 250개에서 51개 품목을 삭제하고 8개 품목을 신규 선정해 16개 분야 207개로 조정했다.

GR 인증대상제품 변경 내역

구 분	현 행	증감/명칭변경			변경 후
		증가	감소	명칭변경	
폐요업(폐석고)	34	3	5	6	32
폐유리	10	-	1	1	9
폐목재	15	-	7	2	8
폐섬유	9	-	1	-	8
폐금속	8	1	1	-	8
폐플라스틱	82	2	25	3	59
폐고무	32	1	9	4	24
폐유기용제	2	1	-	-	3
폐 유	3	-	1	-	2
식물성잔재물	5	-	1	-	4
폐지, 폐수처리오니, 폐산·폐알카리, 폐식용유 유기성폐기물, 수산물가공잔재물	50	-	-	-	50
17개 분야→16개 분야	250	8	51	16	207

산자부는 “현재 생산기업의 기술수준이 낮거나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지 않아 인증을 부여하기에 부적합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시장확대 폭이 큰 품목을 추가했으며, GR 인증제품을 대표적인 환경친화제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품질·기술력·환경친화성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제품에만 GR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를 막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해 GR 인증제품이 우수제품으로서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갖추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14>